



가을의 멋스러운 정취 중구(重九)

강 육
자유기고가

요즘 거리 곳곳에 울긋불긋 핀 단풍만큼이나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껏 화려해졌다. 가을은 만인의 연인이라 하지 않았던가.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이슬이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장차 응결되려고 한다는 한로(寒露)와 이슬이 응결하여 장차 서리가 되어 내린다는 상강(霜降)의 절기가 들어있는 달이다.

10월에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중구(重九)’라는 명절이 있다. 음력 9월 9일의 중구는 9월 중의 유일한 속절(俗節)이며, 중양(重陽)·중광(重光) 또는 그냥 ‘구일’이라고도 한다. 중양·중광은 양(陽)이 겹친다는 뜻이며, 중구는 ‘9[九]’라는 수가 겹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偶數]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5월 5

일)·칠석(7월 7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기수민속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는 다 중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개 중양이라고 하면 중구를 가리킨다.

중구를 비롯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대(漢代) 이래로 중구절에 상국(賞菊)·등고(登高)·시주(詩酒)의 풍속이 있었고, 당송대(唐宋代)에도 관리들의 휴가일로서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중구의 풍속이 전해져 왔다. 신라시대에는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이 중구에 연례적으로 모여서 시가를 즐긴 듯 하며, 고려시대에는 중구의 향연을 국가적으로 정례화 하였다. 또, 조선 세종 때에는 삼짇날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추석에 행하던 기로연을 중구로 옮기고 유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 조에 의하면 “서울의 풍속을 보면 중구 날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며 단풍놀이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중구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풍속으로 보인다.

좀더 중구의 풍속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실 중구의 풍속은 그리 널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문인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를 보면 중구에 대한 시(詩)가 있는데, 이 시는 중구의 풍속에 대한 일면을 보여준다.

“금꽃을 처음 거두어다가 둥근 떡을 구워 놓고 상락주(桑落酒)를 새로 걸러 자그마치 술지게미를 짜냈다. 붉은 잎 가을 동산에 아담한 모임을 이루었으니, 이 풍류가 억지로 등고(登高)놀이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양절(重陽節)의 술을 상락(桑落)이라고 한다>.”

중구에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풍속이 전해 온다. 성주단지에 햇곡식을 갈아주며 제물을 차려 성주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었고, 기일(忌日)을 모르는 조상이나 연고자 없이 떠돌다 죽은 안타까운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었다. 한편, 추석 무렵에 햇곡식이 나지 않아 차례를 지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날에 차례를 지냈다. 이는 처음으로 생산된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고자 하는 정성이 담겨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옛 우리 조상들은 과연 이 날

에 무슨 음식을 해먹었을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 조에 의하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빚어 먹는데, 그 방법은 삼월 삼짇날 진달래 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전(花煎)이라 한다. 지금의 국화떡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 등을 잘게 썰어서 꿀물에 타면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중구의 시절음식으로 국화전과 화채를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꾸민 술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산이나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를 했다. 부녀자 · 소년 · 소녀들은 제각기 무리 지어 하루를 즐겼고, 문인(文人)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으며 주흥을 즐겼다.

시기적으로 중구는 약초가 한고비를 이루는 때였다. 구절초는 이 때가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이나 들에 나가 많이 뜯었다.

중구는 부녀자들이 약수터에 가느라고 분주한 날이기도 했다. 3월 3일, 즉 삼월 삼짇날에 약물신(약에 대해 힘을 다스리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9월 9일 중구에는 돌아가므로, 이 날이 지나면 몸을 씻어도 덕을 못 보기 때문이었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중구 날 제비가 다 강남(江南)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이 시기가 되면 제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아홉 명절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날, 동시

에 가을의 풍요로움만큼이나 다양한 시절
음식이 행해졌던 날이 바로중구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중구와 같은 아름답고
정겨웠던 옛 세시풍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로는 생활의 마디로서, 때로는
모두의 축제로서 신명과 생기를 북돋아주
었던 그 모습을 간직해봄이 어떨까. 🍵

